철저한 코칭은 제자훈련 목회를 쉽게 만든다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이하 CAL세미나)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년 동안, CAL세미나는 13,000명 이상의 수료자를 배출할 정도로 한국 교회의 깊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세미나 등록 때마다 수백 명의 등록 대기자들이 기다리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은 CAL세미나가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좋은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정작 CAL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가는 목회자들 중에 마음속에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확인하긴 했지만,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강의를 들을 때는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도, 정작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일피일 뒤로 미루다 CAL세미나를 다녀온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제자훈련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병호 목사

- 총신대 졸업
- 총신대 신대원 졸업
- 경기신학교 헬리어 교수 역임
- The Holy Land Institute Of America 수료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 존 낙스 신학교 목회학 박사(D.Min.) 취득
- 현 대림교회 담임목사

이번 호에서 소개할 일산 대림교회는 제자훈련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목회자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일산 대림교회를 시무하는 이병호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제자훈련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른다면,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CAL세미나에 다녀왔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죠. 많은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모르는 걸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답을 찾으려니까 힘든 겁니다. 저도 제자훈련을 하면서 모를 때마다 국제제자훈련원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더라구요."

올해로 목회 경력 26년째인 이병호 목사는 사실 목회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목회 전문가이다. 더군다나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측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 목사는 교단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 목사는 제자훈련 목회를 실시하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국제제자훈련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목회 경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 목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목회자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2001년 제50기 CAL세미나를 수료하고, 2002년부터 일산 대림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한 이병호 목사는 올해로 5년째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 5년 동안 이 목사 자신의 말처럼, 철저히 국제제자훈련원의 코칭을 받으면서 제자훈련을 실시해왔다. 목회 경력 26년에 목회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그였지만, 그는 제자훈련에 있어서만큼은 초보라는 생각으로 철저히 자세를 낮췄다.

그렇게 5년간 제자훈련을 실시한 결과, 일산 대림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사역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로 변화됐다. 사실 일산 대림교회는 이제 제자훈련이 정착한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일산 대림교회에서 일어난 변화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든다. 이번 호에서는 일산 대림교회가 지난 5년 동안 제자훈련을 실시해왔던 과정을 통해 제자훈련을 시작하려는 목회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자훈련 접목 과정에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원리 1 들을 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한다

1982년에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개척을 시작한 대림교회가 현재의 위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으로 이전한 것은 1994년이었다. 12년간 열심히 목회에 전념했지만 주일 낮 예배 장년 출석인원은 100명을 넘지 못했고, 대림교회를 개척한 이병호 목사는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했다. 그때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신도시로 교회를 옮기는 것이었다. 신도시로 이사하기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100명이 채 안 모이던 대림교회는 일산으로 이주하자마자 매주 새신자들이 등록하는 교회로 변했다. 그래서 일산으로 이전한 지 7년 만에 주일 낮 예배 장년 출석인원이 500여 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신도시 교회들이 겪는 아픔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정착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대림교회가 위치해 있는 탄현동도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고, 세입자들의 거주 기간인 2년을 주기로 사람들의 이동이 매우 심했다. 30, 40대 젊은 성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대림교회 역시 이런 고민을 경험했다. 하지만 일단 젊은이들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자 교회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었다. 30, 40대 가정주부들은 사회적 활동성도 강하고, 지식에 대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데 훈련만 하고 있는 모습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다. 이병호 목사도 동일한 문제를 경험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목사는 타협이 아니라 목회철학에 대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제자훈련에 집중했다.

한 욕구가 대단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원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교회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병호 목사가 그런 성도들의 요구를 그냥 흘려듣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병호 목사는 성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노력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현실에서, 성도들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그에 맞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목사는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정보도 찾아보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외의 사건으로 실마리를 풀었다.

진주에서 일산으로 이사 온 한 부부를 심방한 이 목사는 그 부부로부터 뜻하지 않은 정보를 얻었다. 그 부부는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을 했는데, 새신자들이 정착하는 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병호 목사는 그 부부가 다녔다는 교회 담임목사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바로 진주 성북교회 이춘수 목사였다. 이병호 목사는 이춘수 목사를 일산으로 초청해서 바나바 사역 세미나를 열었다. 이병호 목사는 이춘수 목사와 식사를 하면서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이춘수 목사가 제게 소개한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이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자훈련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춘수 목사는 자원해서 진주 성북교회의 제자훈련 자료를 들고 이병호 목사를 찾아왔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제자훈련 목회 시스템을 설명해줬다. 이춘수 목사로부터 제자훈련 목회 시스템을 전수받은 이병호 목사는 곧바로 CAL세미나에 등록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거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국제제자훈련원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했다. 이병호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목회자 중에 성도들의 말,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목회하는 목사들이 적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목사가 어디 완벽합니까?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 방법을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문제를 해결하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잘 들어야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이병호 목사는 성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들어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된 멘토를 통해 자신의 고민을 질문했다. 그는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위, 체면에 의존하기 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일산 대림교회는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나타난 문제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확실히 해결할 수 있었다.

원리 2 고비를 넘으려면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50기 CAL세미나에 참석한 이 목사는 광인론이 가장 인상 깊은 시간이었다고 한다.

"원래 제가 한번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푹 빠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인가 옥 목사님의 광인론은 제 평소 목회 스타일과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자마자 저도 선포를 했지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제자훈련에 목숨 걸 거라고 말이에요."

이 목사는 CAL세미나를 다녀온 이듬해인 2002년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사실 이미 2001년 10월부터 이춘수 목사가 가르쳐 준 일대일 양육 과정을 '제자훈련 기초반'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1기 제자반에 참여한 108명 중 교역자를 제외한 평신도 훈련생들은 모두 제자훈련 기초반을 수료한 자들로 구성했다.

그런데 정작 제자훈련을 실시하자 문제가 나타났다. 일대일 양육 훈련 때는 잘 따라오던 성도들이 제자훈련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제자훈련을 계속한다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문제는 그 협박이 협박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며 제자훈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제자훈련 중에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제자훈련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108명으로 시작한 1기 제자훈련은 78명만이 수료했다. 성도들은 제자훈련만 강조하는 이병호 목사에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당회원들도 '제자훈련만 강조하지 말고, 이젠 교회 성장에도 신경 쓰라'고 충고를 했다. 그때의 심정을 이 목사는 이렇게 고백했다.

"사실 참 힘들더라구요. 일산으로 이사 온 뒤부터 우리 교회는 줄곧 새신자들이 들어오는 교회였지 나가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자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붙잡으려면 제 목회철학을 포기해야 했는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 목회자가 느끼는 심정은 자신의 수족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다고 어느 목사가 표현한 적이 있다. 그만큼 목사는 성도 한 사람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교회를 떠난다는 성도를 붙잡지 않은 이병호 목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일까?

"그때 저는 '나보고 제자훈련 그만두라고 하려면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미 요단강을 건넜고, 홍해를 건넜다' 이거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이든 변화하는 데는 고비가 있다. 하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병호 목사의 이런 타협하지 않는 태도는 앞에서 보여준 듣는 태도와는 정 반대의 모습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목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의 요구를 들었고 그것을 위해 제자훈련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 목사가 타협하지 않은 것은 성도들의 요구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듣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세는 결국 앞서 성도들이 요구했던 그것을 이루려는 목회자의 일관된 자세이다.

"제자훈련은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린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은 사실이다. 제자훈련 시작해서 적어도 제대로 된 열매를 보기까지는 5년이 걸린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제자훈련은 힘들고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쉽다.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데 훈련만 하고 있는 모습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다.

이병호 목사도 동일한 문제를 경험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목사는 타협이 아니라 목회철학에 대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집중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제자훈련에 집중한 지 올해로 5년째인 이병호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제 주변의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다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 교회를 보면서 '나도 제자훈련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도 앞으로 제자훈련하는 목회자로 세대교체를 하기로 결정했을 정도죠. 지난 5년 동안 고비를 넘는 것이 힘들었지만 일단 넘고 나니 목회가 그렇게 편하고 쉬울 수가 없더라구요."

**"검증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자훈련 목회를 처음 시작하려는 목회자라면,
처음부터 너무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모델교회를 통해 검증된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자훈련 목회에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리 3 목회자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병호 목사는 무슨 확신으로 그렇게 제자훈련을 밀고 나갈 수 있었을까? 이병호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저 자신이 먼저 제자훈련의 효과를 톡톡히 봤거든요. 비록 인도자의 입장이지만 저 역시 훈련생이라는 생각으로 제자훈련에 임하다보니 제게도 변화가 일어나더라구요. 매년 제자훈련을 인도하면서 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먼저 맛보고 나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병호 목사는 인도자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 즉, 인도자가 먼저 제자가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를 키워내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제자훈련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가 먼저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제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목회자가 인도하는 제자훈련이 과연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이병호 목사는 대림교회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 제자반을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교역자 제자훈련은 제대로 된 제자훈련이 아니었어요. 담임목사 앞이라 그런지 교역자들도 전혀 자신을 오픈하지 않았고, 인도자였던 제 모습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스스로 제자가 되는 것보다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것에 급급했죠. 제자훈련이 뭔지도 모른 채, 제자훈련 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아 무조건 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안 거죠. 문제는 제가 하던 대로 교역자들이 똑같이 제자훈련을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역자가 인도하는 제자반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제자훈련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을 찾은 이 목사는 그때부터 자신도 훈련받는다는 자세로 제자훈련에 임했다. 숙제도 똑같이 하고, 배운 내용에 대한 적용과 결단도 훈련생과 똑같이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이 목사는 훈련생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방법도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삶을 나누는 식으로 바뀌었다.

제자훈련이 달라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훈련생들이 서서히 자신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제자훈련 받으면 너무너무 좋다'는 소문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이 난 뒤부터 제자훈련은 확실히 대림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다.

원리 4 검증된 모델을 따르면 실패가 준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이병호 목사는 기존의 목회 스타일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역들을 도입했다. 그 사역들은 주로 사랑의교회를 통해 검증된 것들이었다. 새가족 모임으로 시작하여 제자훈련, 전도폭발로 이어지는 훈련 시스템이나 대각성 전도집회, 그리고 심지어 교회의 사명선언문까지 이병호 목사는 사랑의교회의 것을 그대로 도입했다.

이 목사의 말을 빌리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될 정도"이다. 이병호 목사가 이처럼 사랑의교회를 모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의교회에 대한 동경심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달동네에서 사역하는 어느 목회자가 옥 목사님께 '달동네에서도 제자훈련이 가능하겠느냐?' 고 묻자 옥 목사님이 '옥 목사라면 달동네에서 제자훈련 했겠느냐' 고 반문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랑의교회에서 열매 맺은 사역이라면, 우리 교회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의교회의 사역들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목회 스타일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이병호 목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병호 목사는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뒷받침할 다양한 목회 시스템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많은 교회들 중에 제자훈련을 자기 나름대로 변형해서 실시하고 있는 교회가 적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이 무작정 자기 경험만 의지하고 제자훈련 시스템에 변형을 주는데,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목사는 오히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고지식하게 제자훈련을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나중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확실히 검증된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겠다고 결정했다.

"검증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자훈련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모델이 보여준 대로 따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 목회를 처음 시작하려는 목회자라면, 처음부터 너무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모델교회를 통해 검증된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자훈련 목회에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훈련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요즘 제자훈련의 맛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이병호 목사는 일산 대림교회가 제자훈련을 시작한 뒤부터 180도 다른 교회로 변했다고 말한다.

"첫째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사역의 주체로 나서서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하는 교회로 변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나 부목사들이 거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일일이 간섭을 해야만 교회가 움직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자훈련을 통해 배출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교회가 되었지요. 목회자 중심의 교회에서는 담임목사가 이것저것 참견해야 할 일이 많아서 참 피곤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지만 평신도 지도자들이 사역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목회하기 편합니다.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교회가 저절로 움직이거든요."

이병호 목사는 소그룹 사역에서 그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낀다고 했다. "제자훈련을 지원하는 성도들에게 '왜 제자훈련을 받으려고 하느냐?' 고 물으면 '우리 순장님과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어서' 라고 대답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그걸 보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소그룹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는지 안 봐도 훤하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자신의 은사대로 사역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로 변했다는 것이 이 목사가 말하는 두 번째 변화다. 탁월한 소그룹 리더들이 생기면서 일산 대림교회는 당회나 전도회 조직을 없애고, 소그룹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즉, 교회의 모든 사역이 소그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또한 이병호 목사는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개발원' 제도를 도입하여, 14명의 장로들을 14개 개발원 원장으로 세우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이 개발원을 통해서 진행되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당회는 각 개발원의 사역보고와 그에 대한 협의를 하는 자리로 바뀌었다.

이 목사는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했는데, 일반적으로 당회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장로가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인데 반해, 일산 대림교회의 장로들은 재정 개발원을 맡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재정 개발원의 주 업무는 당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한 재정을 집행하는 일뿐이기 때문에 장로들이 "아무런 재미가 없다"며 회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로들이 섬김을 받으려하기보다는 사역하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당회 조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사랑의교회에서 실시하는 시무 장로와 사역 장로제도를 도입하여, 은퇴한 네 명의 장로들에게 소그룹에서 사역하도록 부탁했다. 장로들은 이런 조직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이병호 목사의 마음은 그야말로 기쁨 충만이다. 그래서 이병호 목사는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자신이라고 이야기한다.

"예전에는 목회가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회가 너무 재미있어요. 제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목회가 재미있고 쉬워졌다는 이병호 목사.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제자훈련이 성도들의 머리만 키우는 훈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그 사람들에게 과연 제자훈련을 정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석대로 했는지 묻고 싶어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도 제자훈련을 시작하자 문제가 먼저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건 저희가 제자훈련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먼저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면서부터 우리 교회에는 제자훈련의 열매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도 제대로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계신다

"저는 제자훈련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훈련시켜 주님 닮은 제자로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목회의 본질이지요. 목회자가 가져야 할 최우선의 관심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지 부흥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질을 회복하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지요."

지난 5년 동안, 일산 대림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온 힘을 집중했다. 중간에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위기도 있었지만,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완전히 정착한 지금은 다시 교회가 서서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대림교회는 주일 낮 예배 출석인원이 800명으로 늘었다.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보다 300여 명이 늘어난 것이지만, 대림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게다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계층이 30, 40대 젊은 그룹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자훈련을 시작한 이후에 대림교회는 그야말로 건강한 교회가 보여주는 성장의 열매도 함께 맛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병호 목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어느 목회자나 마찬가지로, 이병호 목사도 하나님께서 대림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목사는 그것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이 목사는 이런 생각을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매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전후까지 진행되는 '목회자 제자훈련'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이 목회자 제자훈련은 이 목사가 주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후배 목회자들이 이 목사에게 제자훈련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제자훈련을 통해 대림교회와 이병호 목사에게 일어난 변화가 교단 내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목사는 목회자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훈련에 임한다.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건강한 목회철학을 가진 목회자라는 것이다. 앞으로 그는 기회가 되는 대로 제자훈련을 통해 건강한 목회철학을 가진 목회자를 키워내고 싶다고 고백했다.

이병호 목사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통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제자훈련 목회를 좀더 일찍 알지 못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남들보다 늦은 때에 제자훈련을 알게 된 만큼, 지금 그가 경험하는 제자훈련의 열매는 더 달콤하기만 하다. 이병호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왜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자훈련은 분명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 때문에 목회가 재미있고 쉬워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종 목사〉

평신도 인터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 제1기 제자반, 이현옥 권사

"늦은 나이에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큐티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어요. 훈련 중에 한 번 야외로 나간 적이 있는데 속이 다 후련해지더라구요."

제자훈련 1기 수료생인 이현옥 권사는 훈련 기간 동안 받은 과제에 대한 중압감과 부담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지만 이 권사는 그렇게 힘들었던 훈련을 통해 46년 동안 가졌던 가치관이 산산이 부서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했다.

"저는 제 성격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때도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매사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합리적인 성격이 아니라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이현옥 권사는 이제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순장사역에 매진하고 있다.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섬김이에요. 섬김이란 참 쉬운 줄 알았는데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참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영혼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 제1기 사역반, 박을숙 권사

"제자훈련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 참석했으니까 '이것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이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시작했다는 박을숙 권사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된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한다.

"일산은 정착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교회라는 애착과 헌신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 교회라는 확신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해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배운 대로 살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박 권사는 순장으로 사역하면서 순원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병호 목사가 훈련 때 이야기하던 것을 그대로 말하는 자신이 신기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이전에는 제가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을 '교회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지금은 내가 영혼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영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상섭 전도사〉